

# 내수경기 침체시 서울 지역 자영업의 위험성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창의시정연구본부

조달호(연구위원·dhcho@sdi.re.kr)

김세훈(초빙부연구위원·yonkim@sdi.re.kr)

## I. 개요

- 근로자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대별할 수 있음
- 이 중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이 대표적인 경우로, 한국에서는 자영업자가 비임금근로자의 27.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sup>1)</sup>
- 한편 서울의 자영업자는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20.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07만 6천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sup>2)</sup>
- 자영업자의 지위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함
- 위 법에서 자영업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범위에 있으며,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자이며,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라는 정의를 따르고 있음
- 이하에서는 위의 정의에 따라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자영업체를 대상으로, 국내외적 실태와 서울 지역 자영업체 및 종사자 변화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소와 원인을 검토하고자 함

1) 금재호·윤미례·조준모·최강식(2006), 「자영업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p. 5.

2) 서울지방통계청, “2008년 5월 서울시 고용 동향”.

<표 1> 종사자 규모에 따른 소기업 통계분류 기준

대분류	중·세분류	소상공인	소기업
G. 도매 및 소매업	50: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1~4명	1~9명
	5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5171: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52: 소매업(자동차 제외)		
	5211: 대형 종합 소매업		
	5281: 통신판매업		
	52893: 방문판매업		
H.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 및 음식점업		
	55111: 호텔업		
	55113: 휴양콘도 운영업		
J. 통신업	64: 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65: 금융업		
	66: 보험 및 연금업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 및 임대업	70: 부동산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712: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M. 사업서비스업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73: 연구 및 개발업		
	7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432: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O. 교육서비스업	80: 교육서비스업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90: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91: 회원단체		
	92: 수리업		
	93: 기타 서비스업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관련 통계」, 2008. 4 ; 남주하이춘근, 「전국 도소매 서비스업 소상공인 경제지도」, 학위사.

## II. 자영업의 현 주소: 경쟁 심화와 낮은 실질 소득

### 1. 필요 이상의 경쟁심화와 채산성 악화

- 한국의 자영업자 수는 1991년 497만 7천명에서 2006년 613만 5천명으로 연평균 7만 7천명씩 증가해 오고 있음
- 2006년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율(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의 비중)은 26.5%로, 선진 25개국의 평균 14.4%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에 있음
  - 한국 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나라는 그리스만 유일한 수준임
- 대체로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지만, 경제발전이 진행되면서 규모의 경제가 성립하게 되면 자영업자의 비중이 감소하게 됨
  - 실제 선진 25개국의 국민소득이 1만달러 이하였던 시기의 자영업자 비율은 평균 26.9%, 1만5천달러~2만달러 시기의 자영업자 비율은 평균 16.8%임
  - 국민소득이 2만5천달러~3만달러에 이르는 선진국 수준에 이르면 자영업자 비율은 평균 13.5%로 낮아지고 있음
- 하지만 한국은 국민소득 2만달러 수준에 도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비율이 아직 다른 국가의 국민소득 1만달러 미만 수준에 해당하는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표 2〉 경제발전 단계별 자영업자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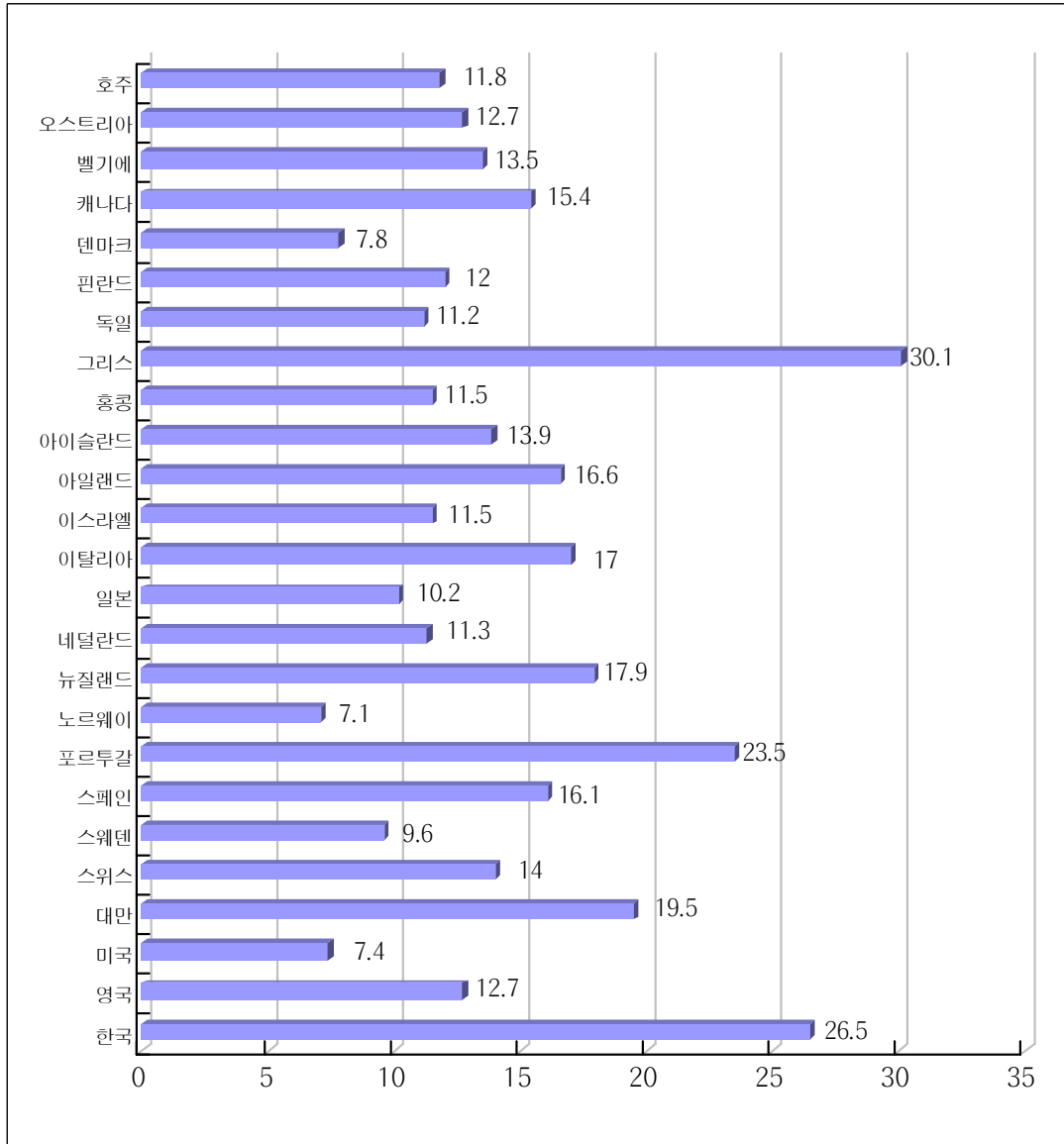
(단위: %)

1인당 GDP		~ 1만달러 미만	1만~1만5천달러	1만5천~2만달러
자영업자 비율	한국(A)	29.1	28.0	26.8
	25개국 평균(B)	26.9	23.6	16.8
격차(A-B)		2.2%p	4.4%p	10.0%p

주: 우리나라의 1인당 GDP 1만달러 미만시기: 1986 ~ 1994년 / 1만 ~ 1만5천달러 시기: 1995 ~ 2003년 / 1만5천 ~ 2만달러 시기: 2004 ~ 2006년.

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영계」 2007년 9월호.

<그림 1> 자영업자 비율의 국제 비교



주: 한국 및 영국의 자료는 2006년 기준이며, 타국가는 2005년 기준임  
 자료: ILO, 「Laborstatistics Internet」;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영계」, 2007년 9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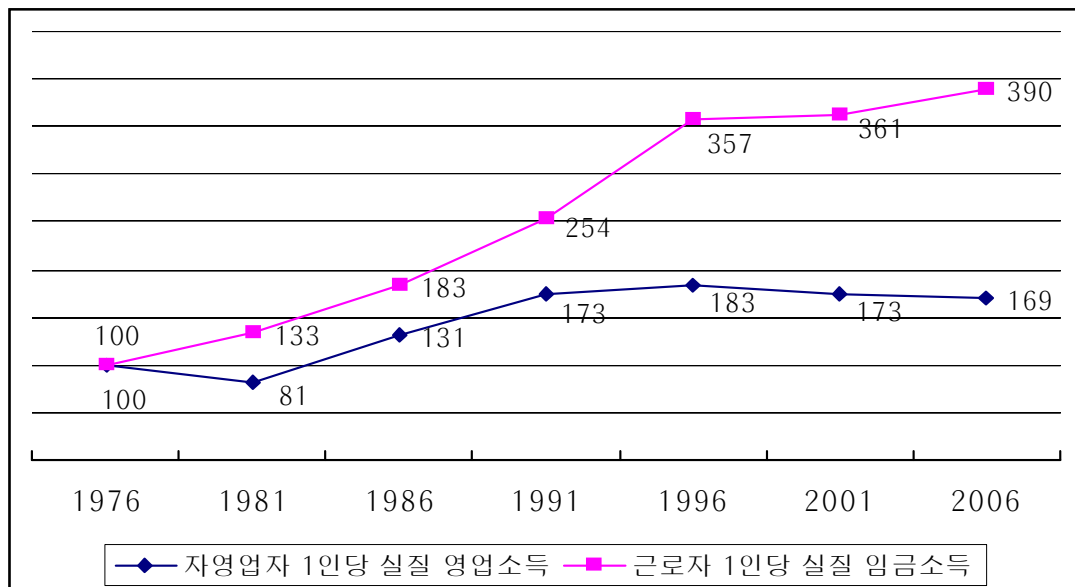
- 경제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영업자 비율은 결국 자영업자간의 경쟁심화를 가져오게 되고, 채산성 악화를 가져오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한국경영자총협회, 2007.9)

## 2. 낮은 실질 소득으로 인한 고용성장의 정체

- 재산성 악화의 문제는 <그림 2>와 같이 실질 소득의 문제로 연결됨
  - <그림 2>에서는 자영업자와 임금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비교하고 있는데, 자영업자의 실질 소득 증가는 임금 근로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임금 근로자의 실질 소득(임금)은 지난 30년간 3.9배가 증가한 반면,
  - 자영업자의 실질 소득은 1.7배 증가하는데 그친 것임

<그림 2> 자영업자 및 근로자 실질 소득지수 추이(1976~2006)

(1976=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소비자물가조사」; 한국은행, 「국민계정」;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영계」, 2007년 9월호.

- 이와 관련해 2007년 자영업자의 소득 증가율도 최근 3년 중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실적인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음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7년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여주는 자영업자 영업잉여(총소득)는 83조 2700억원으로, 2006년(82조 5250억원)에 비해 0.9%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음

- 자영업자 소득증가율이 낮아진 것은 내수 침체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영업을 계속하는 자영업자들의 수입도 변변치 않기 때문임(한국경제, 2008.6.15)
- 또한 고용성장율에 있어서도 타 산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문제의식은 높아질 수 밖에 없음
- 다른 일반 산업은 2000년~2005년 동안 연평균 2~5.5%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자영업 고용성장율은 같은 기간 동안 0.2%에 불과함(헤럴드경제, 2007.12.14)
- 이와 같이 자영업자의 소득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임금근로자로 취업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음
-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 저하와 임금 상승률의 급격한 증가가 근로자의 취업을 어렵게 만들고 자영업자의 비율을 높이는 구조로 나타나게 된다고 할 수 있음

### Ⅲ. 서울 지역 자영업 실태와 위험성

- 자영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됨
  - 근로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 경쟁심화, 채산성 악화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
  - 내수 침체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영업 중인 자영업자의 소득도 낮은 수준임
  - 소득은 낮지만 취업이 어려운 현실 때문에 높은 자영업자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 서울 지역 자영업 분야와 업종별 비중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3>과 같음
  - 서울 지역 자영업에는 도·소매업체 비중이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에서 가장 높았음
  - 다음으로는 숙박·음식점업, 운수업, 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음
  - 이것은 서울 지역 자영업체의 성격이 소기업체(상시근로자 10인미만) 보다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4인)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함
  - 물론 음식점업의 경우 일부 대형업소가 포함될 수 있으나, 비중이 높은 대부분 업종들의 성격은 따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보다는 업주 단독(운수업) 또는 가족종사자가 운영(도·소매업, 숙박업)하는 경우가 많은 업체들이었음

<표 3> 서울 지역 자영업 분야별 사업체·종사자 규모(2006년)

(단위: 개수, %, 명)

	사업체 수	사업체 비중 (전 산업 대비)	종사자 수	종사자 비중 (전 산업 대비)
전 산업	733,759		3,894,666	
제조업	59,689	8.1	172,557	4.4
전기, 가스, 수도사업	34	0.0	164	0.0
건설업	15,320	2.1	49,553	1.3
도매업, 소매업	208,022	28.4	466,741	12.0
숙박업, 음식점업	111,482	15.2	286,653	7.4
운수업	93,380	12.7	113,003	2.9
통신업	1,408	0.2	5,930	0.2
금융업, 보험업	3,709	0.5	15,662	0.4
부동산, 임대업	32,331	4.4	67,842	1.7
사업서비스업	26,736	3.6	98,068	2.5
교육서비스업	20,112	2.7	56,465	1.4
공공, 수리, 개인서비스업	63,650	8.7	118,621	3.0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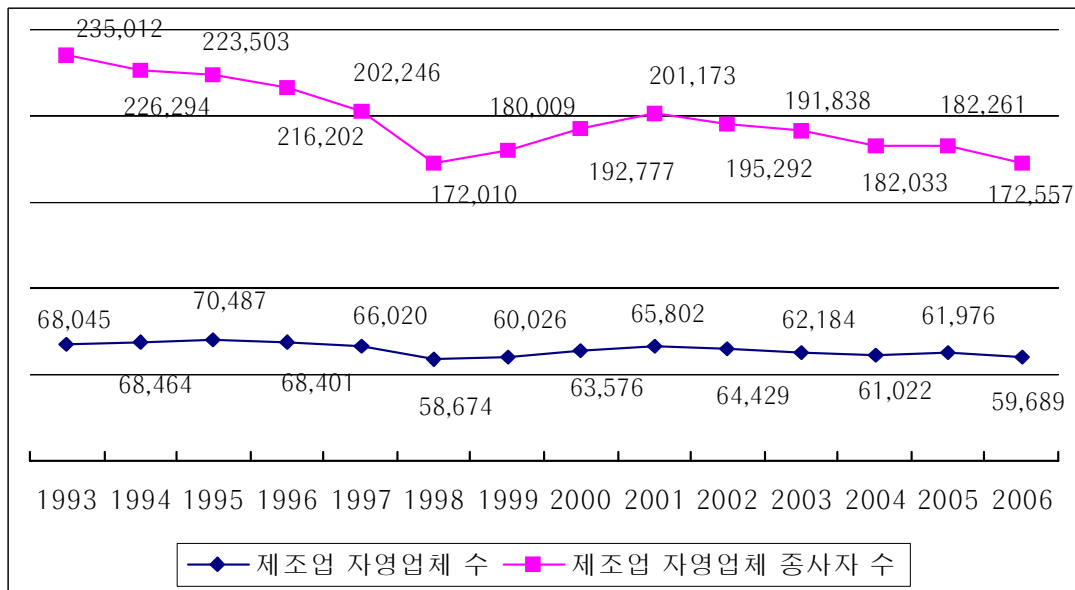
□ 제조업 분야

○ 서울 지역 제조업 분야의 자영업 활동 추이를 살펴보면, 자영업체 수는 2001년부터 소폭 감소하며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종사자 수는 완전히 하락세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이것은 자영업체가 폐업하게 되는 경우는 적은 반면 종업원의 수는 크게 줄이고 있는 현실을 의미함
- 2006년 현재 제조업 자영업체 종사자 수는 공식적인 통계의 확인이 가능한 1993~2006년의 시기 가운데 IMF시기 다음으로 적은 수준에 도달해 있음

<그림 3> 제조업 분야의 자영업 활동 추이

(단위: 명, 개)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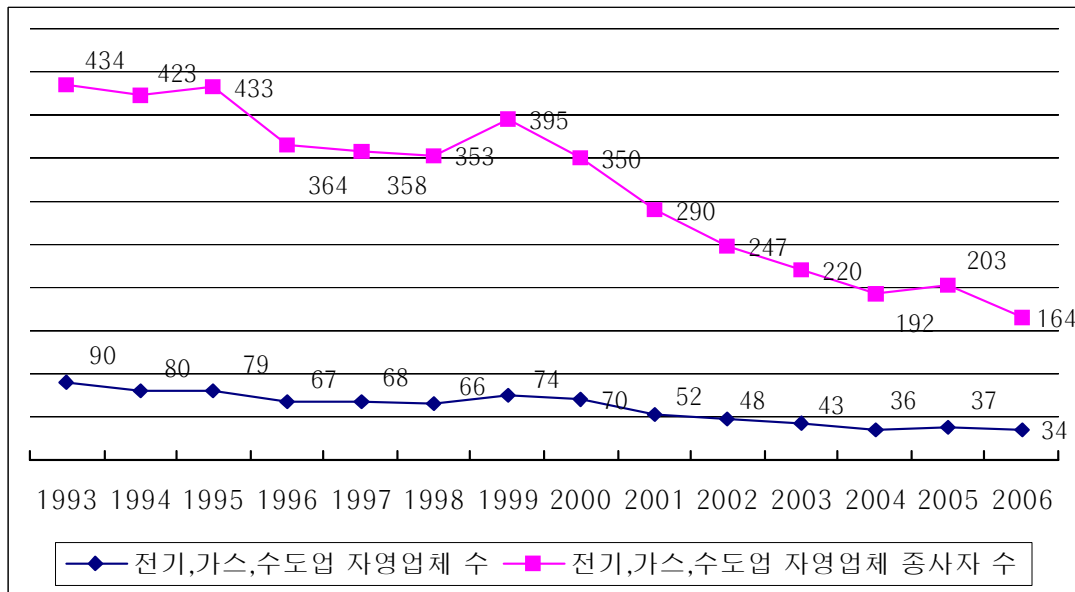


□ 전기가스수도업 분야

- 전기가스수도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체 수는 완만하게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임에 반해 종사자 수의 감소는 매우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이 업체 수의 감소에 비해 종사자 수의 감소가 급격하다는 것은, 사실상 업체에 임금근로자가 사라지는 추세에 있음을 말하며, 업주 1인의 개인사업체화 되고 있음을 의미함
- 1999년 이후의 지속적인 추세로 볼 때 특별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종사자 수는 계속 감소될 것으로 보임

<그림 4> 전기가스수도업 분야의 자영업 활동 추이

(단위: 명,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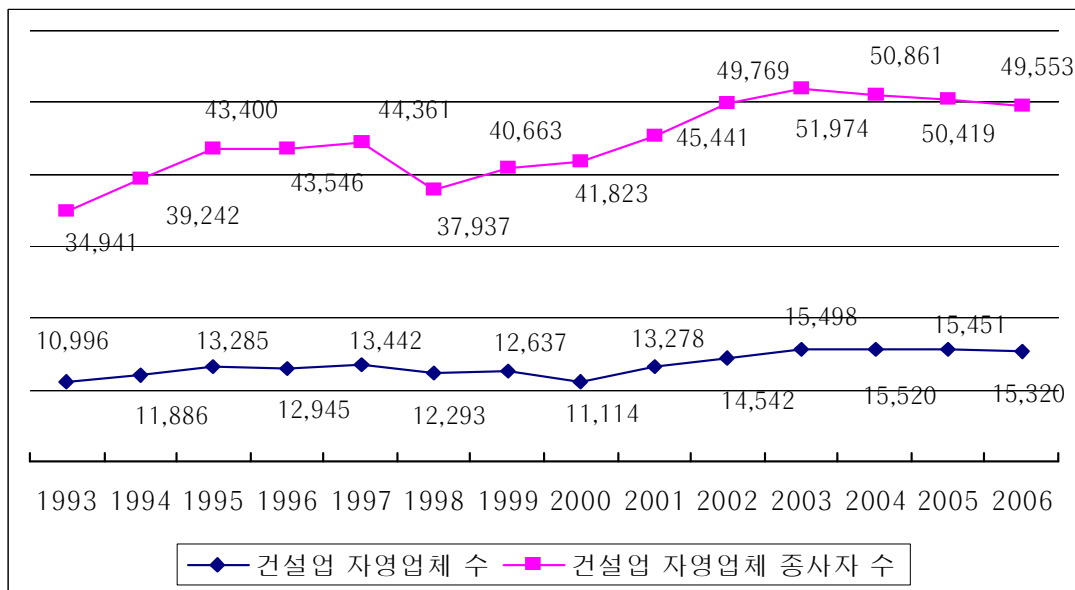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건설업 분야

- 건설업 분야의 자영업체는 주로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소규모 작업팀이 해당됨
  - 이러한 건설업 자영업체는 대상 기간 동안 소폭의 증감을 유지해 왔고, 2003년 이후에는 일정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음
  - 하지만 건설업 분야 자영업체 종사자 수는 199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자영업체 수의 증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5> 건설업 분야의 자영업 활동 추이

(단위: 명, 개)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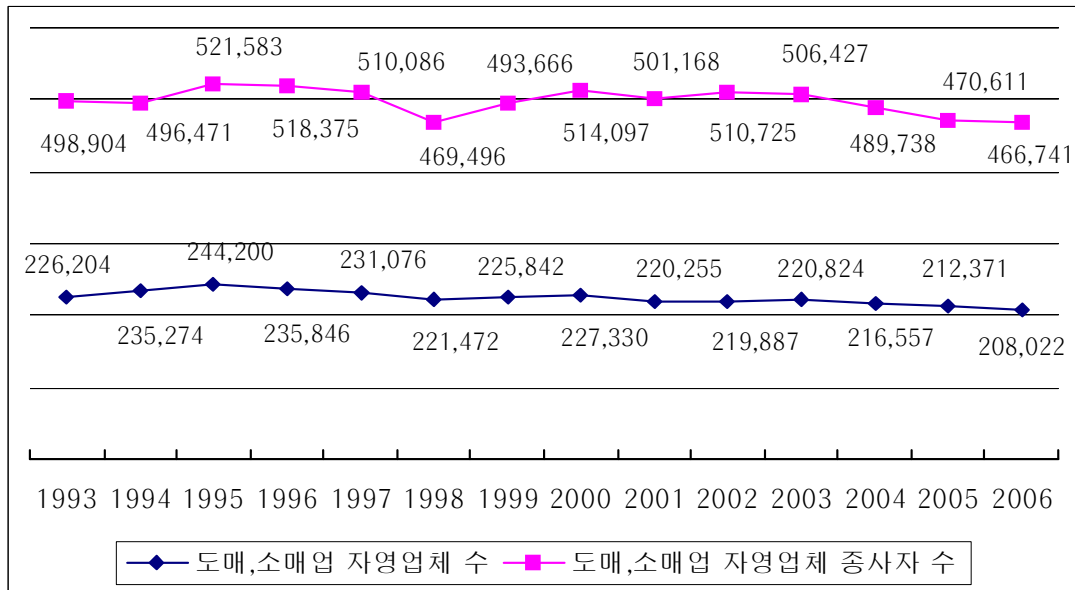
□ 도매업·소매업 분야

○ 도매업 및 소매업 분야 자영업체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도 완연한 감소세에 있음

- 자영업체 수는 2006년 현재 20만8천여개로 2003년 22만여개에 비해 1만개가 넘는 업체가 감소하였고, 2000년 이전과 비교하면 2만개 이상의 업체가 감소하였음
- 한편 종사자 수는 2004년에 50만명 이하의 수준으로 하락한 이후 매년 1만명 내외가 감소하고 있음. 특히 2006년 현재 종사자 수는 46만 6천명 수준으로 IMF시기였던 1998년 46만9천명 보다 하회하기 시작하고 있음

〈그림 6〉 도매·소매업 분야의 자영업 활동 추이

(단위: 명,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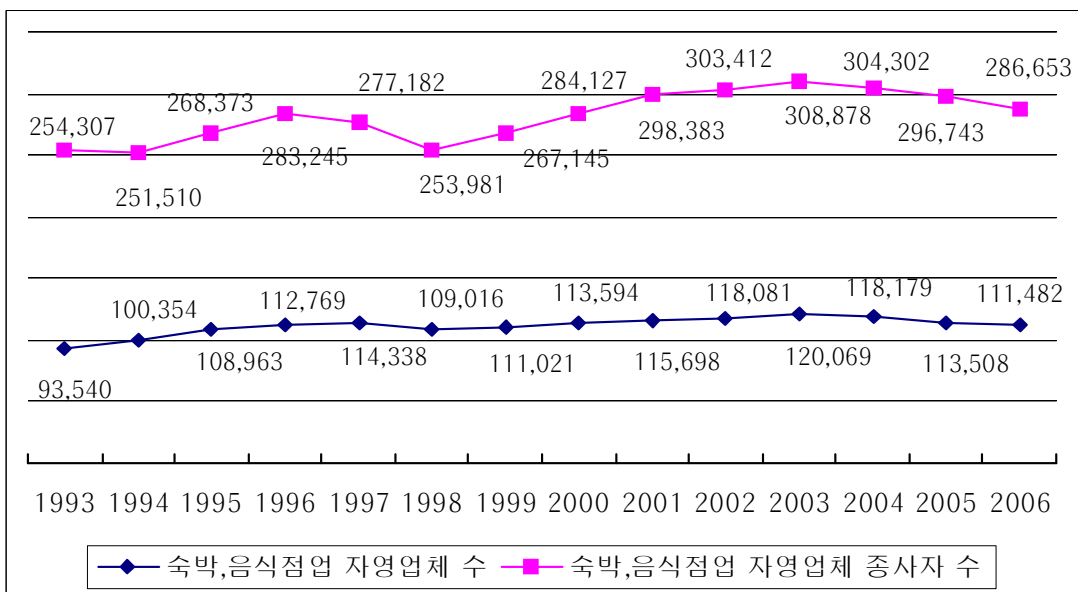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숙박·음식점업 분야

- 숙박·음식점 분야의 자영업은 2003년 이후 업체와 종사자 수 모두 감소하고 있음
  - 업체 수는 IMF시기인 1998년을 제외하면 통계가 존재하는 1993년부터 2003년까지 계속 증가 추세를 이어오고 있었음. 하지만 2004년부터 업체 수는 감소 추세로 돌아선 이후 매년 2,000~5,000개 정도의 업체가 폐업하고 있음
  - 자영업체 종사자 수는 1999년부터 증가세를 이어오다가 2004년부터 감소세로 전환 되었음. 2006년 현재 28만6천명의 종사자 수는 최근 5년 이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그림 7> 숙박·음식점업 분야의 자영업 활동 추이

(단위: 명,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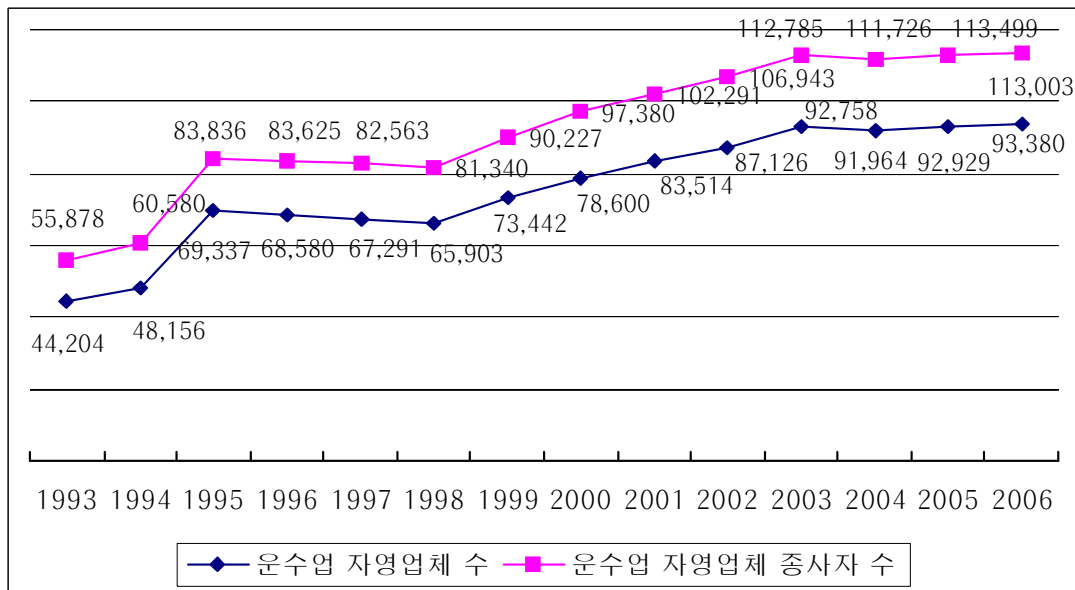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운수업 분야

- 운수업은 화물자동차운수업과 오토바이 소형화물운수업 등 넓은 범위가 해당됨. 운수업은 개인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개인운전자 자체가 업체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음
  - 운수업 자영업체는 1993년 이후 IMF시기를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여 왔음
  - 특히 개인사업자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듯 업체 수의 증가 추세와 종사자 증가 추세가 거의 유사하게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음
  - 그동안 살펴본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이 자영업체 뿐만 아니라 종사자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비해 운수업은 빠른 증가 추세라는 점이 특이사항임

<그림 8> 운수업 분야의 자영업 활동 추이

(단위: 명,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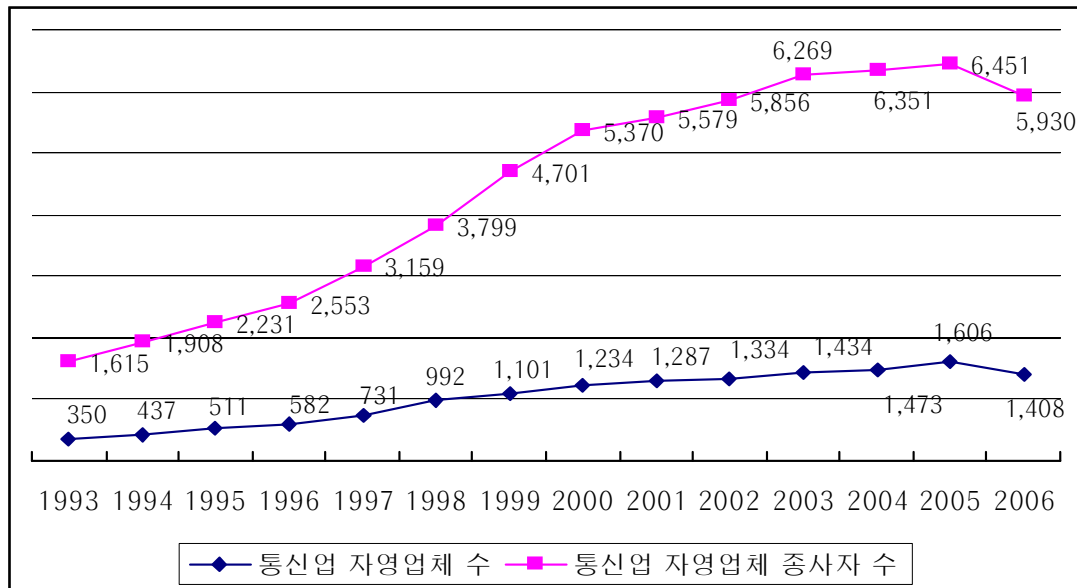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통신업 분야

- 최근 인터넷과 모바일 통신환경이 날로 개선되고, 새로운 서비스도 빠르게 공급됨에 따라 유무선 전화, 인터넷 등 통신 분야의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
  - 이를 반영하듯 통신업 분야의 자영업체 수도 1993년 이후 빠르게 증가해 오고 있는 추세임. 다만 2006년에는 소폭 하락으로 전환된 바 있는데 실제 업체 감소 수는 500여개로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었음
  - 한편 종사자 수는 2006년에 200여명의 하락 이외에는 계속 증가되어 오고 있으나, 업체 수의 증가에 비해서는 그 증가폭이 매우 미약한 것이 특징임. 즉 통신업 분야의 자영업체는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는 보기 어려움

<그림 9> 통신업 분야의 자영업 활동 추이

(단위: 명,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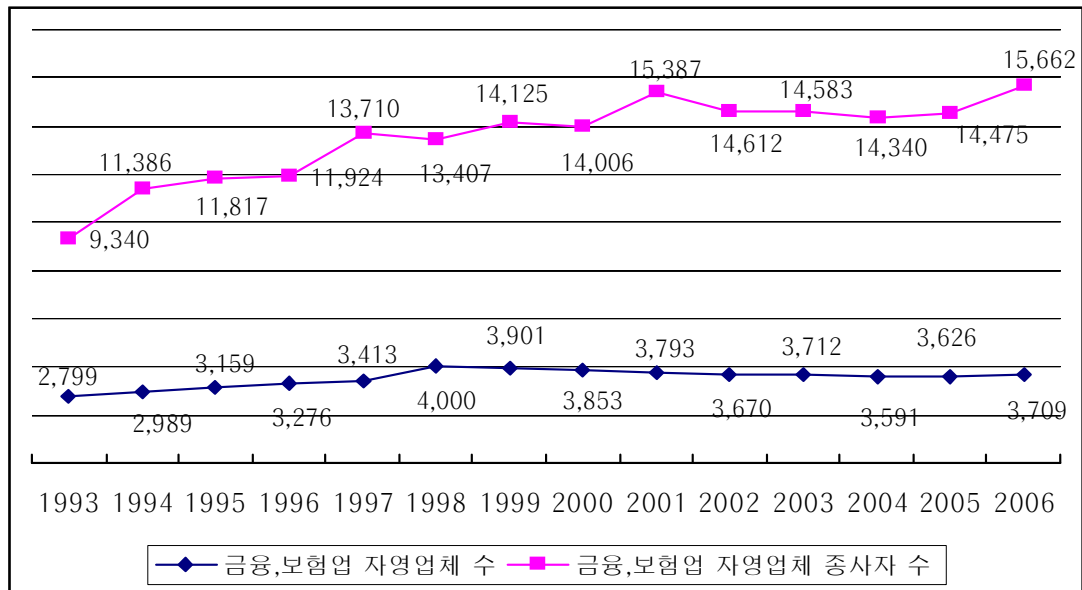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금융·보험업 분야

- 금융·보험업분야는 종사자 수의 증감이 자주 나타나고 있고, 업체의 증감 폭은 크지 않은 것이 특징임

<그림 10> 금융·보험업 분야의 자영업 활동 추이

(단위: 명,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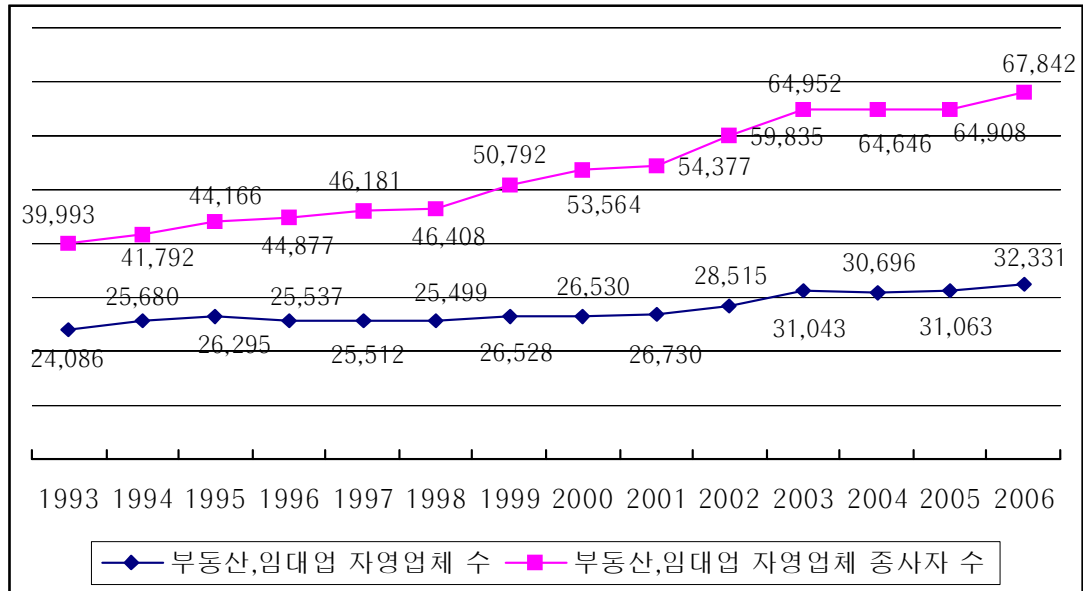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부동산·임대업 분야

- 부동산, 임대업 분야의 자영업체와 종사자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특히 자영업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종사자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2004년과 같이 하락시에는 동반 하락으로 나타날 정도로 증감 추이를 동일하게 나타내고 있음

<그림 11> 부동산임대업 분야의 자영업 활동 추이

(단위: 명, 개)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 사업서비스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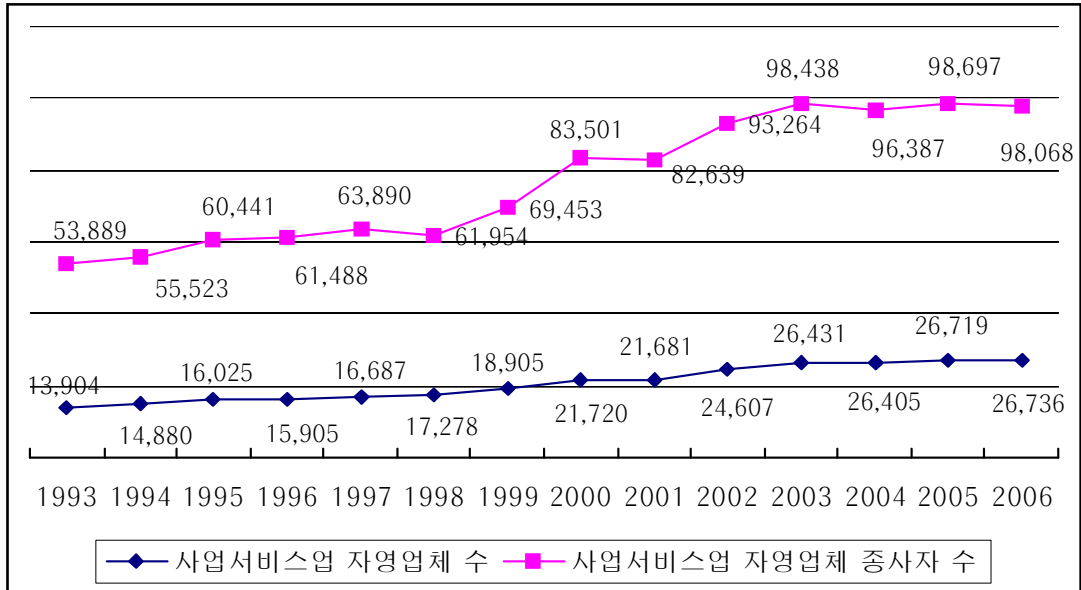
○ 사업서비스업은 우리 주변에서 기술서비스 업종과 컴퓨터 관련 업체가 주로 분포되어 있음

- 사업서비스 자영업체 수는 1993년부터 2000년경까지는 증가추세를 이어오고 있었으나, 2003년 이후에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음
- 사업서비스 자영업체 종사자 규모 또한 2003년 이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며 소폭 하락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



<그림 12> 사업서비스업 분야의 자영업 활동 추이

(단위: 명, 개)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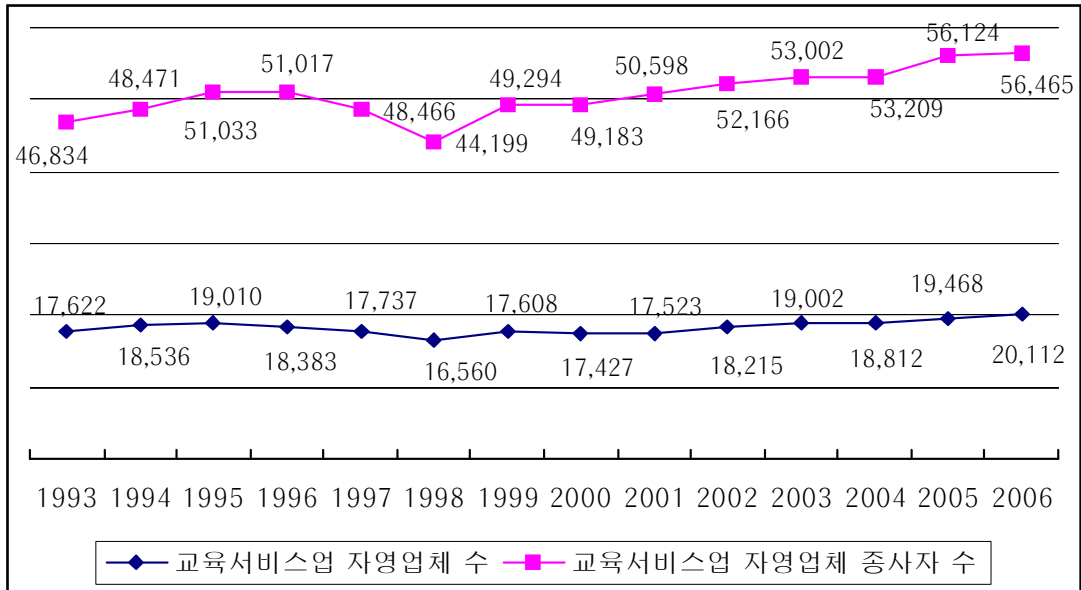
□ 교육서비스업 분야

○ 교육서비스업은 우리 사회의 교육열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바와 같이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는 분야임

- 자영업체 수는 매년 600 1,000개 내외의 업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한편 교육서비스 자영업체 종사자 수는 업체 수에 비해 더욱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2006년을 제외하고는 2000년 이후 매년 1,000 3,000명 내외의 수준으로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림 13> 교육서비스업 분야의 자영업 활동 추이

(단위: 명, 개)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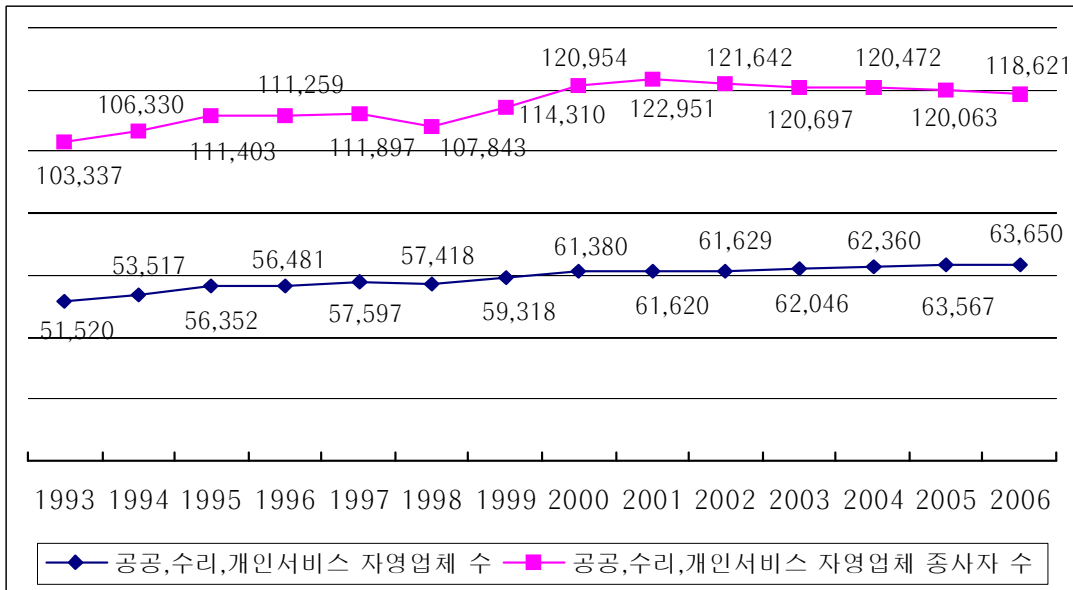
□ 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 분야

○ 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은 주로 청소 및 기기 수리 등 일상생활 주변에서 필요한 기타 서비스 분야로 볼 수 있음

- 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은 전문적인 고급기술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임금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인력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임
- 그렇지만 관련 자영업체 수는 소폭의 증가추세가 있다고는 보이나 그 폭이 매우 작아 증가의 의미를 논의하기는 어려운 수준에 그치고 있었음
- 이를 반영하듯 관련 종사자 수는 2001년을 기점으로 점차 하락하고 있었음
- 이것은 공공수리·개인서비스 분야에서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우는 소수나마 계속 나타나고 있으나 더 이상 종업원의 고용은 꺼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즉 고용은 마이너스로 접어든 만큼 자영업체는 업자 홀로 운영하거나 무임금가족종사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림 14〉 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 분야의 자영업 활동 추이

(단위: 명, 개)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IV. 종합적 논의

○ 서울 지역의 자영업 활동 추이를 살펴보고, 종합적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서울 지역 자영업체와 종사자 규모 감소 현실화

○ 자영업의 대표적인 업종이라 할 수 있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은 업체 수 뿐만 아니라 종사자도 완전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음. 특히 자영업체에 종사하는 인력은 임금 근로자의 취업이 어려운 현실 때문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소매업의 경우 2004~2006년 동안 업체 수는 8,000여개가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종사자 수는 23,000여명이 감축되어 종사자의 일자리 상실에 대한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 경기 침체에 민감한 영세 자영업자의 증가

- 영세 자영업자의 증가 폭이 커졌을 가능성이 있음.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도 운영 환경이 영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들은 점포 또는 공간을 임대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경우라 판단할 수 있음. 그러나 운수업 같은 경우에는 초기자본의 투입이 적어서 개인사업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 분야에 걸쳐 운수업은 자영업체 수와 종사자 수 모두 가장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주목되었음

## □ 내수경기 침체 지속시 대량실업의 위험이 내재

- 판매를 담당하는 종사자의 증가폭이 커져 향후 내수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대량 실업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었음. 이는 부동산임대업, 통신업 분야와 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 분야가 대표적임. 통신업 분야는 2000년 이후 자영업체 수는 큰 변화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종사자 수는 2005년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음. 또한 금융보험업 분야도 업체 수는 오히려 소폭 하락하는 와중에도 종사자의 수는 증가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 이것은 영업경기가 활발해 단순 판매 인력 수요가 급증하다는 의미일 수 있으나 내수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전반적으로 소비자의 소비 수요가 냉각된다면 종사자의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문헌

- 김재호·윤미례·조준모·최강식(2006), 「자영업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남주하이춘근(2005), 「전국 도소매 서비스업 소상공인 경제지도」, 학위사.
- 중소기업청(2008), 「중소기업 관련 통계」.
-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2008년 5월 서울시 고용 동향”.
-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영계」 2007년 9월호.
- 한국경제, 2008.6.15
- 헤럴드경제, 2007.12.14